



mirror webzine <mirrorwebzine@gmail.com>

[온우주] 출판사 이규승입니다.

이규승 <kslee@onuju.com>
받는사람: editor@mirrorzine.kr

2019년 4월 23일 오후 2:42

온우주 출판사 대표 이규승입니다.

거울 사이트 운영진 명의로 아래와 같은 메일이 발송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웹진 거울 운영편집진입니다.

온우주 출판사가 우리 필진이 대거 참여했던 '여성작가 SF 단편모음집(2018)'과 관련된 작가권리 보호와 계약사항을 바르게 이행하지 않은 정황이 신고되어 필진 여러분께 요주의 안내를 드립니다.

2018년에는 해당 출판사에서 발생한 출판지연 및 고료지연지급, 텀블벅과 관련한 고료 미지급으로 인해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가 공식 입장문을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필진들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셔서 온우주 출판사와의 계약에 각별히 신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다른 출판사/플랫폼 등과 유사한 사례를 겪은 필진께서는 거울 내부에서 정보를 공유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안이 발생한 즉시 운영편집진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웹진 거울 운영편집진 드림

이에대한 거울의 공개적인 해명을 요청합니다.

아래는 요청의 근거입니다.

1. 작가권리 보호와 계약사항을 바르게 이행하지 않은 정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 구체적인 사항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온우주 출판사를 파렴치한 출판사로 모함하기 위한 의도로 읽힐 수 있습니다.
2. 텀블벅과 관련한 고료 미지급으로...
- 언급된 '여성작가SF단편모음집'을 포함하여 그동안 모든 텀블벅 펀딩과 관련한 미지급금은 없습니다.
-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이는 '여성작가SF단편모음집' 참여작가이자 거울 회원들에게 직접 확인하면 입증될 문제입니다.

24일 오후까지 공개적인 해명이 없을 경우 온우주 출판사는 메일의 내용을 포함하여 입장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승 드림.